

## 엽기 40대, 아내 내연男 손가락 절단

나원침 (6938) 김홍두



7 광주일보 제17564호 2006년 9월 28일 목요일

### 어린이 납치후 콩팥 적출 광주에 소름끼치는 '괴담'

어린이가 납치된 뒤 콩팥을 빼앗기고(摘出) 풀려났다는 '괴담'(怪談)이 광주·전남에 널리 퍼지면서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괴담의 내용은 이달 초 광주시 서구에 사는 6살 난 아이가 며칠 실종된 후 집에 되돌아왔는데, 배에 수술 자국이 있었다는 것이다. 놀란 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진찰 결과 콩팥 한 개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같은 소문은 광주시 서구 처평동 D 아파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나주지역 C 공무원이 포털 사이트 '다음'(www.daum.net)과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올리면서 급속히 퍼졌다. C 공무원은 이 글에서 '요즘 놀이터에서 놓고 있는 어린이들을 '과자를 사주겠다'며 유인한 뒤, 무허가 시설소로 데려가 장기를 떼어내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내 아내가 광주 서구 D아파트 주부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다"면서 "풍문이라고 하기에는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다. 괴담의 중심에 있는 D아파트 주부는 본보 기자와

### 소문 확산에 부모들 '불안' 경찰 '피해자 신고편 수사'

직접 만나 "말한 내용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치 않을 수 있어 누구인지 가르쳐 줄 수 없다"며 피해자 공개를 거부했다. 경찰은 아직 사건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해올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소문이 사실일 경우 장기밀매단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콩팥 등 어린이의 장기는 비슷한 연령의 다른 어린이에게는 이식할 수 있고, 수술 뒤 3일만 지나면 걸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조선대병원 문성표 외과 전문의는 "어린이 장기 이식 수술은 광주에서는 전대·조대·기독교병원만이, 서울에서도 대학병원급만이 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면서 "소문이 사실이라면 시술자는 고도의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다음'의 '신지식'계시판에는 충북 청주에서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가 납치당한 뒤 신장이 떼어졌다는 글이 게재됐으며, 대전에서는 지난 2004년 어린이를 납치해 장기를 적출한 뒤 집으로 돌려보내는 '홍악범'이 있다는 '괴담'이 나돌기도 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에서도 이 영화를 연상케 하는 엽기적인 손가락 절단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의 불륜에 화가 치민 남편이 상대 남성의 손가락을 잘라버린 것이다. 지난 7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정모(44·부동산중개업)씨의 사무실. 임모(34·자영업)씨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울부짖었다. 응접용 탁자에는 날카로운 흉기 등 3개의 도구가 놓여있었다. 경기도가 주거지인 임씨가 이곳에 끌려온 것은 8년 전 정씨의 아내(43)와 저지른 불륜이 들끓던 때문. 평소 아내의 행실을 의심해온 정씨는 최근 임씨에게 전화를 걸어 8년 전의 일을 꼬치꼬치 추궁했다. 아내와 사귀었던 것을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불라는 것이었다. 임씨는 당시 아내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지배인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며 폭발한다.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그는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의 손가락을 도끼로 내리친다. 1993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피아노'의 한 장면이다.

### 8년전 아내 불륜 자백 받아내 보복 2시간 감금... "절단할 부위 골라라"

으로 일하고 있었다. 추궁을 못이긴 임씨는 결국 "3개월간 돌이 사귀 적이었다"고 고백했다. "당장 내려오라"는 정씨의 호통에 임씨가 광주로 내려왔다. 한 때 형, 동생 하던 사이인데 어떻게든 용서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아내의 불륜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정씨는 "잘못 했다고 생각하면 네 가지 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소리쳤다. 성기·엄지발가락·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가운데 하나를 자르라고 협박했다. "맨 정신으로는 안 되겠다"며 소주 2병을 나눠마시기까지 했다. 임씨는 2시간 동안 "살려달라"고 사정했다. 도망쳐볼까 했으나 정씨의 후배 등이 지키고 있어 엄두도 못 냈다. 결국, '새끼손가락'을 선택했다. 정씨는 아내에게 흉기를 임씨의 왼손 새끼 손가락 위에 대도록 했다. 임씨에게는 벽돌로 내리치게 했다. 검막은 임씨가 제대로 내리지 못해 절반밖에 잘리지 않아 자신이 직접 잘라내는 냉혹함을 보였다. 임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아, 손가락을 잃지는 않았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정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윤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광주, 전남·북 92개 단체 1천여 명이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연내 제정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비자금 6~7억 조성 정황 포착 광주농협 수사 '급물살'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비자금 조성 및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 동부경찰은 농협 관계자들이 6~7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수사에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은 27일 농협 광주본부 총무팀 실무자와 거래처 관계자 50여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2~2005년 농

### 불륜관계 폭로 격분 내연녀 흉기 살해

광주 북부경찰은 27일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한 혐의(살인)로 문모(47·광주시 남구 방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새벽 2시 20분경 광주시 북구 두암동 0식당 앞에서 흉기로 내연녀인 한모(39)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문씨는 한씨를 살해한 뒤 한씨의 집에 찾아가 딸(20)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저지로 목숨을 건졌다. 경찰 조사 결과 2개월 전부터 한씨와 동거를 해온 문씨는 한씨가 최근 자신의 아내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하고, 딸과 함께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온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동시도시의 중강특권을 자랑하는 3.626 최대단지! 평당 1.2억 2천만 원에 불과! 최강의 수확성! 062-367-9000

휴전 휴대전화 사용 위치추적에 '달미' 상나팔 ○고등학생들이 휴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 위치 추적을 한 경찰에 달미.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16·고1년)군 등 2명은 지난 8월10일 새벽 2시경 광주시 동구 산수동 주택가에 주차돼 있는 박모(53)씨의 택시 문을 열고 휴대전화와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27일 붙잡힌 것. ○이 군은 휴전 휴대전화로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화를 걸다 위치 추적을 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는데, "응답이 부족해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고 후회.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세계스타·세기보청기**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로운 디자인과 개성 있는  
세기 보청기

##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